한·일 근대소설에 묘사된 부산과 도쿄의 도시 공간에 대한 비교

권혁건*
kwon6134@hanmail.net
이경규**
lk5120@deu.ac.kr
전수진***
99ao126@hanmail.net

<目次>

1. 서론
2. 선행연구
3. 『만세전』에 나타난 부산
4. 『산시로』에 나타난 도쿄
5. 결론

主題語: 근대소설(Modern novels), 근대문명(modern civilization), 도시공간(urban spaces), 도시화(urbanization), 부산(Busan), 도쿄(Tokyo)

1. 서론

근대 이전의 한국은 전형적으로 농업을 주로 하는 순수한 농업국이었다. 따라서 반만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근대화가 시발되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도시화의 족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876(고종13)년에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에 따라 당시 조선은 부산 외에 인천, 원산의 두 항구를 개항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산은 개항과 더불어 긴 잠에서 깨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부산이 개항한 이후인 1900년을 전후한 시기의 조선의 도시화율은 대체로 4~5%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20년의 4.9%에서 해방 전

* 東義大學校 日語日文學科 敎授, 日本近現代文學 專攻
** 東義大學校 日語日文學科 敎授, 日本語學 專攻
*** 東義大學校 日語日文學科 講師, 日本近現代文學 專攻

해인 1944년에는 19.6%로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 30.8%, 1970년에 50.3%를 거쳐 현재는 85%를 상회하는 수치」[1]를 나타내고 있다. 반만년이나 지켜오던 국민들의 농촌을 중심으로 한 생활 터전이 근대시대에 접어들어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서구식 건축물의 등장과 시내에 전차가 다니는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불과 한 세기만에 완벽하게 뒤바뀐 것이다.

일본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근세시대였던 에도막부(江戶幕府) 말기에 서양의 신문화와 신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적인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되 중국의 한(漢)을 버리고, 서양으로부터 학문과 기술, 즉 양(洋)의 재(才)를 배워야 한다며 「와콘요사이(和魂洋才)」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서양문명을 급속하게 받아들였다. 메이지 정부는 1869년 3월 28일 도쿄를 근대 일본의 수도로 정하고 서구의 선진문명과 문화를 섭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철도건설의 기점인 「신바시(新橋)의 철도관의 건설, 긴자(銀座)의 벽돌거리(煉瓦街)의 건설, 근대병원과 미션스쿨의 등장, 도쿄 기상대」[2] 등을 건립하여 나갔다. 벽돌로 만들어진 서양식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도쿄는 밤이 되면 도로의 가스등에 불이 켜져 마치 서양의 거리처럼 보였다. 당시 도쿄에 등장한 철도와 전차, 긴자의 벽돌거리, 신문, 우체국, 기상대, 가스등, 도쿄제국대학 건물 등은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서양 문명의 급속한 수용에 의해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서구 도시처럼 바뀌어 갔다. 갑자기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도쿄의 도시화를 향한 변신은 서민들에게 근대문명과 문명개화의 발원지, 입신출세의 신천지의 역할을 하여 성공을 하려면 고향을 버리고 도쿄에 가야되며,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 주었다.

문학이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 녹아내려 있는 허구화된 세계일 것이다. 때문에 한·일 양국의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 속에는 작가가 체험한 삶의 체취가 배어 있으며, 서양을 모방하여 새롭게 건설된 근대도시가 안고 있는 빛과 그림자가 형상화되어 나타나 있다.

염상섭(廉想涉, 1897-1963)의 작품 『만세전(萬歲前)』(1922년)과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로 간략하게 표기함)의 작품 『산시로(三四郎)』(1908년)에는 서양을 모방하여 급격하게 변모해 가는 부산과 도쿄의 도시 공간 풍경이 묘사되어 있어 흥미롭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서양으로부터 동북아시아로 근대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와 갑자기 근대화가 시작되었던 시대에 『만세전』과 『산시로』에 나타난 부산과 도쿄가

1) 최병선(1997) 「한국의 근대화와 도시환경」『亞細亞文化硏究』第2輯,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122

2) 김필동(2009) 「근대일본의 도쿄표상 연구」『일본문화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제이앤씨, p.158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산과 도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문학 작품에 나타난 두 도시 비교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약 100년 전 『만세전』과 『산시로』 속 주인공들이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부산과 도쿄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부산과 도쿄가 도시화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작품 속 주인공들이 근대 도시를 응시했던 시선의 차이점도 함께 점검하려고 한다.

2. 선행연구

염상섭의 『만세전』과 소세키의 『산시로』는 한 · 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므로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연구물이 산더미처럼 많다. 『산시로』 한 작품에 대해 1908년(明治41)부터 1993년(平成5)까지 85년간 일본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간행한 무라타 요시아(村田好哉)의 『漱石『三四郎』書誌』[3]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산시로』에 관련된 선행 연구물은 1,200편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메이지시대 문명개화의 실상과 도쿄의 번성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본 연구 테마와 관련된 선행연구 네 편을 소개하겠다.

정형은 일본 근대소설의 선구라는 평가를 받는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뜬구름(浮雲)』(1885-1889) 역시 주인공 우쓰미 분조(内海文三)의 고뇌와 불안을 통해 당시 일본이 추구하는 근대문명의 이면을 그려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뜬구름』의 주인공 우쓰미 분조처럼 「시골로부터 도쿄로 상경하는 일본 지식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메이지 40년대의 나쓰메 소세키 작품의 주요한 모티브」[4]가 되었다고 논했다.

김필동은 문명개화에 의한 물질적 유신에 편승한 도쿄의 번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쿄에의 인구유입을 초래했으며, 문명개화의 세상이 도래한 이상 서구화를 구가하고 있는 도쿄에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방에서 도쿄로 올라오는 「인구증가는 향도인구, 즉 비농업인구의 증가가 많았다. 관공청 · 군대 · 학교 · 문화관계자 · 신 산업 · 신규상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고, 직인(職人) · 호코닌(奉公人) · 하숙자 · 서생(書生) 들」[5]이 대거 도쿄에 밀려들어 도쿄 번성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논했다.

---

3) 村田好哉(1994) 『漱石『三四郎』書誌』翰林書房, pp.7-269
4) 정형(2009) 「근·현대 문학 텍스트를 통해 본 일본인의 심상지리」『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연구』제이앤씨, p.125

에비이 에이지(海老井英次)는 일본은 근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제를 확립한 것과 더불어 메이지20년대(1887-1896) 이후에 「도쿄만이 돌출한 모습으로 근대 도시화를 이루어 나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대> 라는 것이 도쿄밖에 실현되지 않아 지방 각지가 시골로서 멸시」[6] 받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논했다.

권혁건은 「『산시로』의 히로타 선생은 일본의 근대화가 서양으로부터 문화・문명 섭취에 의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서양의 과학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문명에는 합리성과 편리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에 반해 『만세전』의 갓장수는 조선의 근대화는 서양이 아니라 일본, 구체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개설해 놓은 근대문명을 상징하는 기차 등을 이용은 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7]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한·일 근대소설에 묘사된 도시 공간의 빛과 그림자를 『만세전』과 『산시로』에 포커스를 맞추어 작품 주인공들의 부산과 도쿄의 도시화를 응시했던 시선의 차이점 등을 하나의 테마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3. 『만세전』에 나타난 부산

『만세전』은 총 9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나 4장 말미와 5장 전부를 부산에 도착하여 체험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李寅華)는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타고 이튿날 아침 당시 조선을 상징하는 도시였던 부산의 「선창」[8]에 와서 닿았다.

이인화가 부산에 첫발을 내딛는 부산선창은 당시 부산잔교(釜山棧橋)이며 현재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장소이다. 이인화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타고 온 선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사이를 항해하던 일본 철도성 소속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으로 1905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여 제2차세계대전 종전까지 운행했다.

이인화는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하며 닻줄을 낚는 부두 인부들 틈에서 누렇게 더러워

---

5) 김필동(2007) 「近代 日本의 「東京表象」 硏究一明治前期를 中心으로一」 『일본학연구』 제2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48-49
6) 海老井英次(2001) 『開化·戀愛·東京-漱石·龍之介-』, p.46
7) 권혁건(2012)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와 염상섭의 『만세전』 비교 연구-기차 안 승객의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5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83
8) 염상섭(2008) 『만세전』4, 열림원, p.168

진 흰 바지저고리를 입은 조선 노동자가 눈에 들어오자 반가운 마음에 제집에 돌아왔다는 안심을 한다. 그러나 시모노세키에서 연락선을 탈 때도 그랬지만 부산에 내린 다음에도 이인화는 흰 테를 두른 벙거지를 쓰고 외투를 입은 순사보와 육혈포 줄을 어깨에 늘어뜨린 일본인 순사, 헌병들로부터 검문에 시달린다. 그는 부산잔교에서 형사에 잡혀 「파출소」[9]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인화가 부산에 내려 형사에게 끌려가 공포와 불안을 느꼈던 곳은 1920년 총독부 경상남도 고시 65호에 의해 신설된 「제일잔교(第一棧橋) 순사파출소」[10]였다.

이인화가 파출소에서 검문을 마치고 우선 짐을 지게꾼에게 들려 가지고 부산 「정거장」[11]으로 간다. 작품에 등장하는 정거장은 1910년에 신축된 「부산정거장(釜山停車場:현재의 부산역)」이다. 현재 부산 한국무역협회 뒤쪽에서 중부소방서 부근에 있던 당시 부산정거장 건물은 1953년에 대화재로 소실되었고 지금의 부산역 자리로 이전되었다.

부산정거장에 도착한 이인화는 이제까지 부산 시가지를 구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짐을 맡겨 놓고 시가지 구경을 하러 나선다. 시가지에 들어서니 조선 사람 집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일본식 창틀을 박은 일본식 집만이 눈에 들어온다. 당시 부산은 자고 나면 곡괭이질 부삽질에 며칠 동안 어수선하다가 전차가 놓이고, 「우편국」[12]이 세워졌다. 작품에 등장하는 우편국은 「1910년 3월에 건축된 부산우편국」[13]을 말하며, 현재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우체국을 가리킨다. 당시 부산우편국은 부산정거장과 부산세관, 부산상품장려관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었다.

조선시대 후기 동래는 부산의 「행정, 군사, 대일 외교 및 무역을 책임지는 중심지였다. 특히 용두산 주변에 설치된 초량외관에서의 무역과 외교는 철저히 동래부사의 휘하」[14]에 있었다. 부산이 개항하기 이전까지 부산의 중심 도심은 동래였던 것이다. 개항한 이후 일본은 「동래보다는 자신들의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작은 포구를 택해 도시를 형성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동래를 그대로 둔 채 부산을 만들어냄으로써 우회적으로 동래의 기능을 바꾸어」[15]놓았다.

이인화는 현재 부산의 중앙동·동광동·광복동 주변이 일본에 의해 근대화가 되어 이층집, 양옥, 요릿집, 왜갈보 등이 늘어가지만 평범한 부산 시민들은 전등값과 신문대금 지불 등에

9) 위의 책, 염상섭 『만세전』4, p.170
10) 조갑상(2006) 『이야기를 걷다』산지니, p.55
11) 앞의 책, 염상섭 『만세전』4, p.171
12) 위의 책, 염상섭 『만세전』5, p.175
13) 홍순권 편저(2005)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사회단체조사보고서』도서출판선인, p.9
14) 부산근대역사관 편(2004) 『부산근대역사관이야기』세한출판사, p.40
15) 남송우(2006) 「부산 지역문학 속에 나타난 부산성의 모색」『인문사회과학연구』제6집,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76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한다. 근대화가 이루어져 부산 시내에 전차가 놓이고, 자동차가 시내를 뿡뿡거리며 돌아다니며 헌병주재소가 건축되었지만 살아가기에 힘든 조선인들은 집문서를 식산은행의 금고에 맡겨 융자를 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식 도시로 변화된 부산 중앙동·동광동의 시가지 거리를 거닐던 이인화는 어떤 일본 국숫집 문간에서 젊은 계집이 아침 소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안간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는 조선 음식집 대신 일본 국숫집에 들어가 일본인과 혼혈인 접대부 여성들을 만나 술을 마신다. 작품에 묘사된 것을 살펴보면 당시 부산 중앙동 부근에 있는 국숫집에서는 국수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접대부 여성을 고용하여 술까지 팔고 있었던 것이다. 술을 몇 잔이나 마신 일본인과 혼혈인 접대부들 서너명은 젓가락으로 화롯전을 두들겨 가며 장단을 맞춰서 일본 엔가(演歌:일본의 대중음악)가 아닌 경상도 민요인 「담바귀타령」[16]을 「"담바구야, 담바구야, 동래(東萊)나 우루산(蔚山)의 담바구야."」[17] 라고 부른다. 당시 부산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혼혈인 접대부 여성들이 손님 접대할 때 경상도 민요인 담바귀타령를 부르는 장면은 조선의 노래문화를 수용하여 즐기고 있는 것을 염상섭이 작품 속에 아로새겨놓은 것이다.

접대부 여성 가운데 담바귀타령을 제일 잘 부루는 아가씨는 조선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여성이다. 그녀의 조선인 어머니는 대구에 살고 있으며 열 살 적인가 아홉 살 적에 헤어진 일본인 아버지는 현재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살고 있다. 그런데 몸속에 조선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인 여성은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 옷 보다는 일본 옷을 입고 자란 탓인지 「조선 사람은 난 싫어요. 돈 아니라 금을 주어도 싫어요.」[18] 라고 진담으로 말한다.

이인화는 혼혈인 여성이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니까 싫은 것이고, 조선이니까 떠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만약 「조선이 일본만큼 좋았더면 조선 사람 뱃속에서 나왔다기루서니 불명예 될 것도 없고 아버지를 찾아가려는 생각도 안 났을 테지?"」[19] 라고 이인화는 물어보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 짓궂게 물었으나 혼혈인 여성은 이 말을 듣고는 잠자코 웃고 있을 뿐이다.

---

16) 담바귀타령은 경상도 민요임. 소박하고 단순한 노래로서 도드리 장단에 맞는다. 구성음은 '도', '레', '미', '솔', '라'의 5음 음계지만, 그 기본음은 3음계와 같은 단순성을 보여 주며, 3박넷이 한 악구를 이루고, 모두 2개의 악구로 이루어진 단순한 노래임. 사설은 다음과 같음. 시작일세 시작일세 담바귀타령이 시작일세/담바귀야 담바귀야 동래나 울산의 담바귀야/너의 국이 어떻길래 대한의 국을 왜 나왔나/우리 국도 좋건마는 대한의 국을 유람을 왔네/은을 주러 나왔느냐 금을 주러 나왔느냐/은도 없고 금도 없고 담바구씨를 가지고 왔네 (후략)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조: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4d2318a(검색일: 2012.07.17)

17) 앞의 책, 염상섭『만세전』5, p.179

18) 위의 책, 염상섭『만세전』5, p.185

19) 위의 책, 염상섭『만세전』5, p.183

혼혈인 여성은 「조선이라는 두 글자는 자기의 운명에 검은 그림자를 던져 준 무슨 주문(呪文)이나 듣는 것 같이 이에서 신물」이 난 모양으로 조선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불명예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혼혈인 여성을 비롯한 일본인 접대부 여성을 바라보는 이인화의 시선은 「넌 의외에 값이 싼 모양이로구나?」이라고 말하는 등 냉소적이다. 이인화는 접대부 여성들이 손님의 돈을 노려 매상을 올리기 위해 자기들 마음대로 술을 시키는 것을 주시하고는 조선인에게 무례하게 군다고 느끼고 그녀들에게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태도」[20]를 취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부산잔교, 부산정거장, 부산우편국 건물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정당성과 위용을 보이기 위해 지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산을 대표하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경이롭게」[21] 보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인화는 전차가 놓이고 자동차가 뿡뿡거리며 달리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이 신문명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이제까지 살아 온 부산의 땅과 정든 집을 잃고 가난에 지쳐 부산을 떠나 만주 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수난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또한 부산 시내 일본 국숫집에서 일본인·혼혈인 접대부 여성들을 통해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그녀들을 조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보면 이인화는 일본화되어 가는 식민지 도시 부산의 어둠을 냉철하게 응시했던 것이다.

4. 『산시로』에 나타난 도쿄

『산시로』의 주인공인 23세의 오가와 산시로(小川三四郎)는 구마모토를 출발하여 시모노세키에서 운임이 저렴한 삼등열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한다. 산시로는 기차가 도요하시(豊橋)에서 하마마쓰(浜松) 주변을 지날 때 도쿄행 기차 안에서 우연히 히로타 선생을 만나 복숭아를 함께 먹으며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

히로타 선생은 산시로에게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가 복숭아나무 줄기에 비소(砒石)를 주사해서 그 열매에 독이 퍼지는지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복숭아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서 「위험해.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하고 말했다. 히로타 선생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복숭아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근대 과학실험, 호기심, 탐구심

20) 조갑상(2004) 『소설로 읽는 부산』경성대학교출판부, p.82
21) 차철욱 · 배석만 · 노기영(2005) 『부산근대역사관』부산근대역사관, p.70

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관해 에비이 에이지는「호기심과 과학적 실험이 간접적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되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과학적 합리성의 추구와 인간적인 것과의 격차를 위험하다고 경고(警告)」[22]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자주 실험을 하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에게 소세키의 메시지는 과학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警鐘)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대 초기 도쿄는 메이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각종의「문명개화 정책에 힘입어 자신의 원망(願望)-꿈・의욕만 있으면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동경의 세계」[23]였다. 이 시기에는 일본의 각 지방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그리며 도쿄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 근대문명으로 채색된 도쿄는「선진화된 자태를 과시라도 하듯 그들을 맞아들였다.」[24]

당시 청년들에게 있어 도쿄에서 가장 빠르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코스는 도쿄제국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이었다. 작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현재의 도쿄대학)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다. 메이지 정부는 1868년(明治元年)에「바쿠후의 의학소(醫學所)를 의학교(醫學校)로 삼았고, 가이세이조(開成所)를 가이세이학교(開成學校)」[25]로 바꾸어 고등교육제도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후 1877년(明治10) 4월 12일에 도쿄가이세이학교(東京開城學校)와 도쿄의학교(東京醫學校)를 합쳐 일본 최초의 근대적 대학인 도쿄대학(東京大學)을 설립했다. 도쿄대학은 1886년(明治19) 3월 제국대학령에 의하여 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으며, 1897년(明治30) 6월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의 설립으로 도쿄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다.

작품 속 산시로가 1908년(明治41)에 대학을 다녔다고 추정되는 곳도 도쿄제국대학이었다. 구마모토에서 도쿄제국대학에 합격한 산시로는 상경하는 기차 안에서「이제 도쿄에 간다. 대학에 들어간다. 유명한 학자들과 만난다. 교양과 품위를 갖춘 학생들과 교제한다.」[26] 도서관에 파묻혀 연구에 전념하여 세상 사람으로부터 갈채를 받을 만한 저술을 간행해, 구마모토의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기쁘게 해 드리겠다는 빛나는 미래를 꿈꾼다.

도쿄에 도착한 산시로는 우선「전차가 땡땡 울리는 데」[27]에 놀랐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

22) 앞의 책, 海老井英次『開化·戀愛·東京-漱石·龍之介-』, p.50
23) 김필동(2009)「근대일본의 도쿄표상 연구」『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연구』제이앤씨, p.161
24) 위의 논문, p.162
25) 유모토 고이치(湯本豪一) 지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옮김(2004)『일본 근대의 풍경』그린비, p.394
26) 夏目漱石(2003)『三四郎』1, 岩波書店, p.16

이 전차를 타고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도쿄 시내 마루노우치(丸の内)의 번화가를 보고도 다시한번 놀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리 가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도쿄의 엄청난 움직임을 보고 크게 놀라며 경이에 찬 눈빛으로 변화하는 근대도시 도쿄를 바라본다. 하지만 도쿄라는 공간이 자신을 내버려둔 채 격렬한 활동을 하며 엄청나게 변모해 가는 것을 깨달은 산시로는 몹시 마음의 「불안」[28]함을 느낀다.

산시로는 도쿄제국대학 캠퍼스 속의 법문과대학의 오른쪽 끝에 있는 도서관 건물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했다. 그는 캠퍼스 안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니 어쩐지 도쿄제국대학 캠퍼스가 웅대하다고 느낀다. 「학문의 전당은 이래야 한다. 이 정도 규모가 돼줘야 연구도 할 수 있는 거다.」[29] 라고 대학 건물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산시로가 아침 8시에 도쿄제국대학 정문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큰길 좌우에 심어진 은행나무가 눈에 띄었다. 언덕 저편에 있는 2층으로 된 이과대학 건물도 보였다. 정사각형의 공과대학 건물은 봉건시대 서양의 성곽을 옮겨놓은 듯하다. 산시로가 도쿄제국대학 캠퍼스 건물 가운데 크게 감탄했던 건물은 1892년(明治25)에 건립된 제국대학도서관(帝國大學圖書館)이다. 이 도서관은 1877년(明治10) 도서관 소장 도서(장서)수가 약 5만권이었으나 1923년(大正12)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소장 도서수가 76만권으로 늘어났다. 당시 열악한 출판 상황을 고려하면 도쿄제국대학에서 설립 초기부터 도서관을 중시했으며, 도서관 근대화를 위한 시설, 도서 구입비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입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멋진 도서관은 안타깝게도 1923년(大正12)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장서 약 70만권과 함께 화재로 소실되었다. 현재 도쿄대학 구내에 있는 도쿄대학총합도서관(東京大学総合図書館)은 1928년(昭和3)에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으로부터 400만엔의 기부를 받아 준공된 것으로[30] 작품 주인공 산시로가 이용했던 도서관이 아니다.

산시로가 도서관에 들어갔으나 1학년은 안타깝게도 서고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커다란 상자에 들어 있는 카드 목록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니 새로운 책 이름이 끝없이 나와서 즉시 책을 빌렸다. 그러나 빌린 책은 너무 어려워 읽을 수가 없어서 또 반환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매일 책을 8-9권씩 빌려 읽었다. 빌린 책의 겉표지 뒤쪽을 살펴보니 빈 곳에 연필로 뭔가 마구 적혀 있었다. 산시로는 책 속 여기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연필 자국

27) 위의 책, 夏目漱石『三四郎』2, p.24
28) 위의 책, 夏目漱石『三四郎』2, pp.24-25
29) 위의 책, 夏目漱石『三四郎』3, p.39
30) 도쿄대학도서관역사→1.http://www.lib.u-tokyo.ac.jp/sogoto/contents/history1.html.참조. 2.http://www.lib.u-tokyo.ac.jp/sogoto/contents/history2.html참조.(검색일:2012.07.20)

등을 보고는 어떤 책을 빌려도 반드시 누군가가 한 차례 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크게 놀란다. 언젠가 산시로는 혹시나 해서 아프라 벤(Aphra Behn, 1640-1989)이라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가 쓴 소설을 빌려 보았다. 펼치기 전에는 설마 했는데, 역시 연필로 꼼꼼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때 산시로는 선배들이 공부에 빠져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을 빌려 읽은 것을 알고는 도저히 선배들을 이길 수 없겠다고 생각한다.

산시로는 도쿄제국대학 교수로부터 듣는 강의에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도서관의 건물과 시설, 장서수, 도서관 이용 만족도 등에서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산시로는 어느 날 저녁 도쿄 오쿠보(大久保) 부근에 있는 노노미야 집에 갔다가 열차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게 된다. 기차가 멀리서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전에 지나간 열차보다 두 배나 높은 소리가 났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까의 탄식과 지금의 열차 소리를 일종의 인과관계로 엮어 생각했다. 그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제등 불빛에 비친 젊은 여자는 기차에 치여 몸이 잘려 나갔다. 기차가 젊은 여자의 「오른쪽 어깨에서 젖가슴 밑을 지나 허리 위까지 완전히 절단하고는 비스듬히 잘린 동체를 남겨둔 채」[31] 지나가버린 것이다. 기차 바퀴에 몸이 잘려나간 젊은 여자의 얼굴은 사고를 당했는데도 말짱했다.

산시로는 열차 사고를 목격한 후, 너무 놀라 즉시 그 자리를 떠나 되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렸지만 발이 움츠러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제방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오니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산시로의 눈앞에는 아까 본 여자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얼굴과 「아아…….」 하는 힘없는 목소리. 그 두 가지 속 깊은 곳에 잠재해 있을 비참한 운명을 연결시켜 생각해보니, 인생이라는 억센 생명의 뿌리가 어느새 헐거워져 언제라도 어둠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처럼 여겨졌다. 열차사고로 젊은 여자의 몸이 잘려나간 것을 목격한 그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차를 포함한 문명에 대해 두려움」[32]을 느낀다.

산시로는 열차 사고를 목격한 후, 문득 시모노세키에서 삼등열차를 타고 도쿄로 상경하던 기차 속에서 복숭아를 준 히로타 선생이 복숭아나무 줄기에 비소를 주사해서 그 열매에 독이 퍼지는지 시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복숭아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며 「위험해, 위험해,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33] 하고 침착하게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

31) 앞의 책, 夏目漱石『三四郎』3, p.57

32) 앞의 논문, 권혁건「나쓰메 소세키의『산시로』와 염상섭의『만세전』비교 연구-기차 안승객의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p.77

33) 앞의 책, 夏目漱石『三四郎』3, p.58,『三四郎』1, p.20

5. 결론

논자가 이제까지 분석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만세전』에는 당시 부산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혼혈인 접대부 여성들이 손님 접대할 때 경상도 민요인 담바귀 타령를 부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개항 이후 부산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일본인 접대부 여성들과 조선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접대부 여성이 담바귀타령이라는 경상도 민요를 수용하여 즐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부산잔교, 부산정거장, 부산우편국 건물은 이전 시대에 조선에는 없었던 부산을 대표하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경이롭게 보았다. 이인화는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선창에 내린 이후 당시 부산을 상징하는 서양식 건물인 부산잔교, 부산정거장, 부산우편국 건물을 응시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이 일본과 조선을 연결하여 대륙침략과 상품유통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축한 건물이라는 것 이외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경이로운 건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둘째, 도쿄에 도착한 산시로는 우선 전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란다. 도쿄제국대학 캠퍼스의 웅대함과 도서관 건물을 응시하고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한다. 특히 도쿄제국대학 도서관 건물과 시설, 장서수, 도서관 이용 등에서도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도쿄라는 공간이 자신을 내버려둔 채 엄청나게 변모해 가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에 불안함을 느낀다. 소세키는 서구 도시처럼 변화하는 도쿄의 도시 공간에서 열차 사고로 인해 젊은 여성의 몸이 두 동강이 나며 끔찍하게 죽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을 편리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 과학의 발전을 기본으로 해서 탄생한 근대문명이 항상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호소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셋째, 『산시로』에는 주인공 산시로가 도쿄에 도착한 이후 일본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마루노우치와 도쿄제국대학의 도서관을 포함한 서양식 대학건물 등을 응시하며 놀라며 감탄한다. 하지만 도쿄의 도시 공간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과학실험 및 도시 공간을 왕래하는 기차를 바라보며 점차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는 특징이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다. 그에 비해 『만세전』에는 일본인들이 서구로부터 근대 선진 기술을 습득한 이후, 부산에 진출하여 식민지 지배의 상징물인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주택 등을 세워 근대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부산잔교, 부산정거장, 부산우편국 등 위용을 뽐내는 서양식 건물을 작품 주인공 이인화가 응시하여 감탄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부산은 식민지 지배와 대륙침략을 위해 일본인들이 살기 편하게 만든 도시라고 생각한다. 즉 부산을 조선민중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작품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차이점이 있다.

【參考文獻】

권혁건(2012)「나쓰메 소세키의『산시로』와 염상섭의『만세전』비교 연구-기차 안 승객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日本近代學硏究』제35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77-83

김필동(2009)「근대일본의 도쿄표상 연구」『일본문화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제이앤씨, pp.158-162

_____(2007)「近代 日本의「東京表象」硏究 - 明治前期를 中心으로 -」『일본학연구』제22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48-49

남송우(2006)「부산 지역문학 속에 나타난 부산성의 모색」『인문사회과학연구』제6집, 부경대학교 인문사회학연구소, p.76

부산근대역사관 편(2004)『부산근대역사관이야기』세한출판사, p.40

염상섭(2008)『만세전』열림원, pp.168-185

정 형(2009)「근·현대 문학 텍스트를 통해 본 일본인의 심상지리」『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연구』, 제이앤씨, p.125

유모토 고이치(湯本豪一) 지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옮김(2004)『일본근대의 풍경』그린비, p.394

조갑상(2006)『이야기를 걷다』산지니, p.55

_____(2004)『소설로 읽는 부산』경성대학교출판부, p.82

차철욱, 배석만, 노기영 집필(2005)『부산근대역사관』부산근대역사관, p.70

최병선(1997)「한국의 근대화와 도시환경」『亞細亞文化硏究』第2輯,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122

홍순권편저(2005)『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사회단체조사보고서』도서출판 선인, p.9

海老井英次(2001)『開化·戀愛·東京-漱石·龍之介-』おうふう, pp.46-50

夏目漱石(2003)『三四郎』岩波書店, pp.16-58

村田好哉(1994)『漱石『三四郎』書誌』翰林書房, pp.7-269

도쿄대학도서관역사→1.http://www.lib.u-tokyo.ac.jp/sogoto/contents/history1.html.참조.(검색일:2012.07.20)

도쿄대학도서관역사→2.http://www.lib.u-tokyo.ac.jp/sogoto/contents/history2.html참조.(검색일:2012.07.20)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조: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4d2318a(검색일:2012.07.17)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要旨>

한·일 근대소설에 묘사된 부산과 도쿄의 도시 공간에 대한 비교

본 연구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의『산시로』와 염상섭의『만세전』을 비교하여 주인공들이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부산과 도쿄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만세전』에는 당시 부산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혼혈인 접대부 여성들이 손님 접대할 때 경상도 민요인 담바귀타령를 부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개항 이후 부산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일본인 접대부 여성들과 조선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접대부 여성이 담바귀타령 이라는 경상도 민요를 수용하여 즐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둘째, 도쿄에 도착한 산시로는 우선 전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보고 놀란다. 도쿄제국대학 캠퍼스의 웅대함과 도서관 건물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한다. 소세키는 서구 도시처럼 변화하는 도쿄의 도시 공간에서 열차 사고로 인해 젊은 여성의 몸이 두 동강이 나며 끔찍하게 죽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을 편리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 과학의 발전을 기본으로 해서 탄생한 근대문명이 항상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호소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셋째,『산시로』에는 주인공 산시로가 도쿄에 도착한 이후 일본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마루노우치와 도쿄제국대학의 도서관을 포함한 서양식 대학건물 등을 바라보며 놀라며 감탄한다. 하지만 도쿄의 도시 공간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과학실험 및 도시 공간을 왕래하는 기차를 바라보며 점차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는 특징이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다. 그에 비해『만세전』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부산잔교, 부산정거장, 부산우편국 등 위용을 뽐내는 서양식 건물을 작품 주인공 이인화가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부산은 식민지 지배와 대륙침략을 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진 도시이지, 조선민중들의 삶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도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작품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차이점이 있다.

A Comparison of Urban Spaces of the City of Busan and Tokyo as Depicted in Modern Korean and Japanese Novels

In this study, by comparing ‘Sansiro’ written by Natsume Soseki and‘Mansejeon’ written by Yeom Sang-seop, the ways in which the main characters of the novels recognized the urban spaces of the City of Busan and Tokyo, which had been undergoing rapid changes, were analyzed.

First, depicted in ‘Mansejeon’ are scenes of Japanese and mixed race evening hostess women residing in Busan singing a Gyeonsang-do folk song ‘Dambagui-taryeong’ when entertaining male patrons.This depiction shows the Japanese hostess women who had emigrated to Busan after the opening of the city and the mixed race hostess women born of Korean mothers and Japanese fathers embracing and enjoying singing a Gyeonsang-do folk song called ‘Dambagui-taryeong.’

Second, after arriving in Tokyo, Sansiro is first surprised to see how so many people were getting on and getting off street cable cars. He is unwittingly impressed by the grandeur of the Tokyo Imperial University campus and the library building. It can be argued that Soseki was trying to appeal to the readers that the modern civilization, which had been born based on the advancement of science for the convenience and benefit of the humankind, was not always benefiting humans but it entailed the danger of ruthlessly robbing valuable human life at times, through a story about a young woman who dies a horrible death by being cut in half in a train accident in the urban spaces of Tokyo.

Third, in the book ‘Sansiro,’after arriving in Tokyo the main character Sansiro admires and is thoroughly impressed as he gazes upon the Western style university buildings including the library of the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Marunouchiwhich was acting as theheart of the Japanese economy. However, in this literary work, depicted wa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gradual sensing of anxiousness of the mind as the main character watches the scientific experiments being conducted for the benefit of people in the urban spaces of Tokyo and the trains that move around in the urban spaces. In contrast, in ‘Mansejeon,’ nowhere present are scenes in which the literary work’s main character Lee In-hwa looking at and admiring Western style buildings that boast their grandeur, such as the Busan Pier, Busan Station, Busan Postal Station, etc., which were all constructed by Japanese imperialism. Ra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at a special characteristicis embellished in this literary work that considers the fact that Busan was a city built to make the lives of the people of Japan easier for its colonial rule of Korea and its invasion of the Asian continent and not a city for upgrading the happiness of the Korean people.